

01

어촌민속자원 보존의 중요성 및 충남의 도서(어촌) 자원 발굴

박 창 원 교수
충남도립대학교

어촌 민속자료의 중요성과 도서지역 문화자원

충남도립대학교
박창원

어촌민속자료의 중요성

- 동시대성을 현대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이 끌어낸 현대의 자료는 과거로부터 유래된 것
- 어촌 문화자원 연구는 현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며 우리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실존적 질문을 찾는 ford-da game.

근대 시대의 문화파괴와 복원의 필요성

- 현대로 오면서 과학이성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제거작업들이 이뤄지면서 각종 근대 무속신앙의 환타지는 과학이성으로 대체되고 전통 문화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한 기준도 없이 많은 전통적 삶의 흔적이 사라지게 되었다.

근대 시대의 문화파괴와 복원의 필요성

- 해양 문화자원 역시 일본의 식민화 과정과 기독교화 과정, 및 새마을 운동 등의 근대 이념화 과정으로 삶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지역 공동체 문화의 파괴로 연결

근대 시대의 문화파괴와 복원의 필요성

- 일본 군국주의 이념 아래 진행된 일본의 식민화 과정은 동아시아 통합이라는 이념 아래 조선의 문화 왜곡이 이뤄짐.
- 근대성에 내재된 기독교의 선교열망, 문명화, 세련화는 근대 문화적 삶에 나침반 구실을 함.
-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 역시 경제 근대화라는 이념을 위해 지역의 문화유산이 파괴되는 과정이었음.

어촌지역 민속자원의 중요성

- 어촌과 도서지역의 민속자원의 연구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문화의 방언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으로 문화의 원형성 보존을 가장 잘 가지고 있음.
- 제주도의 방언이 가장 원형을 잘 가지고 있듯이 우리 문화의 원형은 도시지역에서 멀리 있을수록 잘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

충남의 도서지역 자원

- 충남의 도서문화의 경우 섬의 전래된 문화 자원의 콘텐츠화에 성공한 지역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도서문화자원이 그저 바다의 거품처럼 녹아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었음.
- 향후 이러한 도서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한 다각도의 실효적 접근이 필요하고 요청됨.

충남 역사문화자원의

유형별 존재 양태와 분포 특성

행정관청

- 일반 행정관청은 원산도(관사터, 국마장, 사창과 진말, 선정비), 대난지도 (관아터), 빙도(내수사 본궁) 등이 있음.
- 원산도 '관사터' 등은 모두 조선시대의 것이며 대난지도의 '관아터'는 시대미상임. 빙도의 '내수사 본궁'은 이성계의 왕실 재산관리용으로 역시 조선시대의 관청임.

군사시설의 종류

- 봉수대는 (전라북도 옥구군 어청도)-외연도-녹도-원산도-(오천면 영보리 망해정 봉수대)로 있는 연결되어 설치되었었으며, 빙도의 쑥봉에도 설치됨.
- 고대도의 조구녀가 있어 조선시대에는 수군들이 나와 목을 지키던 여라고 한다.
- 특히 원산도에는 이외에도 관의 무기창고를 의미하는 진말이 있었다는 것은 충청수영 원산진이 있었기 때문이며 진촌 마을은 충청수영의 우후(虞侯)가 근무 원산도 봉수대하던 원산진이 있던 곳으로 서쪽 언덕너머 오봉산 밑에 '관가'라고 불리는 옛 진영(鎭營)이 있던 곳이 있어 기와가 출토되었다.

놀이자원

- 놀이는 주로 제례와 관련된 놀이로서 고대 각시놀리기(고파도, 장고도, 호도, 원산도)가 있으며 등불써기 놀이(장고도, 고대도, 효자도, 원산도), 등바루놀이(고대도, 장고도)

동물이름 지명 자원

- 동물 연관 도서명으로는 곰 모양의 웅도, 사슴 모양의 녹도 등이 있는데 녹도는 특히 돈여와 노루녀와 함께 섬 모양 관련 전설이 있다.
- 그 외 고대도의 뱅부녀는 마을 막아준다는 방부녀가 뱀 모양과 결합하여 형성된 이름이다.
- 말과 연관자원은 원산도의 국마장이 있다.
- 그 외 물고기 관련 자원으로는 등불써기놀이, 임경업 장군을 신으로 모시는 각종 당제, 고기잡이 어로요 등이 있다.

동물이름 지명 자원

- 그 외 뱀을 주제로 한 자원으로는 장고도의 진대서낭제가 뱀 숭배신앙이며 민담으로는 우도의 쌀독에 들어간 뱀 이야기와 홍성 죽도에 사는 암컷을 찾아 바다를 건너오던 수컷 구렁이 대명이 이야기가 있다
- 새와 관련된 지명 자원으로는 원산도의 지집은 글구라는 새의 전설이 있다. 용 명칭 지명 자원은 모두 전설을 가지고 있다.
- 대난지도의 응달내와 황룡과 청룡, 장고도의 용굴, 용난바위, 용굴과 속녀 등이 있다. 이것은 바다의 신인 용왕과 용의 관련성으로 용설화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을제례 자원

- 외연도의 전횡장군제는 이민족 신이라는 점에서 특질이 있으며 춘추전국 시대의 역사와 초한전쟁과 연계될 수 있는 등 스토리텔링의 요소들이 잘 구성되어 있다. 특히 중국의 전횡도와 연계 자원화 가능성이 있다.
- 장고도의 진대서낭제 역시 뱀을 부락의 집단 수호신으로 삼으며 뱀과 돼지가 상극이라고 하여 섬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기르지도 않는다.

마을제례 자원

- 조기의 신인 임경업 장군을 섬기는 섬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고파도는 신할머니, 삽시도는 처녀신, 녹도는 천신, 가의도는 목판을 놓고 섬긴다.
- 특히 놀이의 일종인 등불써기 놀이는 조기잡이를 위한 놀이형 제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장고도, 고대도, 효자도, 원산도에서 행해져왔다.
- 해막은 제례 중 부정을 막기위한 임신부 피신처로의 분포지역은 전북의 어청도를 비롯하여 충남의 외연도, 녹도, 고대도, 원산도, 장고도, 안면도, 대난지도 등이 있다.

민요자원

- 민요의 주제는 등불써기 노래, 노동요, 어로요, 사랑노래, 제례요, 세월노래 등으로 나뉘어지며, 어로요가 섬 문화를 잘 드러내고 있다.

설화자원

- 인물관련 설화를 주제로 분류해보면 장수 설화가 주를 이루고 나머지 사랑과 유배 설화가 있는 정도이다. 일본관련 설화는 피해의식을 담고 있으며 나머지 중국 관련 설화와 장수 설화 등은 모두 비극 비극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인물 주제

- 외연도의 전횡장군 설화와 가의도의 가의 설화, 삽시도의 홍수래 설화 등이 역사적 사실과 연관된 전설로서 스토리 가치가 있다.

자연관련 설화

- 숲, 동물설화, 바위, 새, 샘, 언덕 등의 설화가 있다. 이중 외연도의 천연기념물 제136호 상록수림이 전횡장군설화와 연결되며, 홍수래와 관련된 지명 전설이 삼시도의 중요한 설화 자원이다.
- 색시골에서 죽은 동생이 새가되어 '계집은 고을마다 있지만 동생은 하나인데'라고 '지집은 글구'라고 운다는 '색시골 설화' 물망터의 물을 마시면 장수가 된다는 장수설화 등이 의미 있는 설화이다.

초현실 설화

- 종교 등 초현실적인 주제를 다룬 설화로는 주로 귀신과 도깨비, 당제, 풍수 설화가 주를 이룬다. 우선 귀신과 도깨비 설화는 외연도의 충청도 아줌마를 부른다는 귀신설화, 가덕이와 을덕이란 도깨비를 이긴 장수 등 도깨비와 인간의 대립 도깨비 불 목격담 등이 주를 이룬다. 다음으로는 일제가 선인의 묘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이야기와 절골의 금쟁이 샘이 명당이란 풍수설화도 있다.

초현실 설화

- 그 외에 뱀(쌀독에 관한 설화)과 소(당제 일화) 관련 초현실적 이야기와 무연고 시체를 묻어주는 선행과 착한 뱀이 용이 된 명장섬 굴 설화 등이 교육적 이야기이다. 지역설화로는 난파한 기생배로 인해 장고 소리가 난다는 바위 설화, 장군수를 마시면 장군이 태어난다는 장군수 설화 등이 있다.

역사사실자원

- 고대도에 마한 때부터 사람이 정착했다고 한다.
- 충남의 서해안 사이를 지나는 해로는 고대 문화의 이동로였으며 이곳을 통해 동양 3국의 문화가 교류되고 있었다.
- 특히 백제시기 중국 남조나 당나라와의 문화 교류나 백제 멸망기 당의 수군이 침략, 통일신라시기 중국과의 열린 출구로서 이들 해로는 매우 중시되었다.

역사사실자원

- 통일신라 말이나 고려시대에 한반도와 중국의 강남문화와 연결되는 고대해로는 마치 오늘날의 고속도로처럼 그 시대의 문화, 경제적인 보급의 인터체인지로서 역할을 하였다.
- 고려말 왜구의 출몰이 잦아 “空島政策”을 실시.

역사사실자원

- 세종 20년 전후(15세기 초 중엽)에 이르러서야 서남해 연안의 행정체제를 겨우 수립.
- 조선 후기에 이주집단이 현 주민의 직계 혈조인 ‘입도조’인 경우가 많다.
- 도피처로서도 임진왜란시 유부도 부자 도피처, 역사상 한번도 전쟁이 없었던 홍성 죽도의 ‘피난꼬지’ 등이 있고, 이민족 피난처로는 가의라는 인물의 도피처인 가의도, 제나라 왕족인 전횡장군 등의 설화가 내려오고 있다.

역사사실자원

- 그 외에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 선교역사의 장을 열었던 고대도 귀출라프 선교사의 방문 과 의병 최후의 전투로서 기록되는 소난지도 의병전투 역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유적과 유물자원

- 유적과 유물로는 구석기유물, 도자기, 돌무덤, 조개더미, 질그릇, 토기 등이 발견되었다.

지명설화 자원

- 지명유형으로는 섬지명, 골짜기, 관청, 동굴, 나무나 당제관련, 돌, 동물, 바위, 산, 샘, 섬 관련 지명이 특색이 있으며 이 중에서 홍수래 설화와 전횡장군 설화가 활용가능성이 있다.

감사합니다.

어촌 민속자원의 중요성과 도서지역 문화자원

박창원 | 충남도립대학교 교수

I. 어촌민속자원의 중요성

1. 현재와 과거

우리는 오천년의 역사를 지닌 민족의 기간을 자랑한다. 이것은 역사가 짧은 국가보다 더욱 우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자산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유전자는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그만큼 긍정적인 가능성이 큰 민족과 국가라고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의 동시대성을 현대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이끌어낸 현대의 자원은 과거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는 현재인 현대의 우리의 근원이며 우리의 부모인 것이다. 이러한 과거 문화유산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은 현대의 본질을 파악해내며 현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 우리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그들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통한 정신을 올바르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해악한 이데올로기가 탄생되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 민족은 역사의 질곡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민속자원에 대한 탐구는 민족지적인 차원의 거대 담론에서도 이뤄져야 하지만 인간의 본질이라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선험적인 주제에 대한 탐구를 함께해야 한다. 그 주제는 바로 우리 인간의 내면세계 깊은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귀착되어야 한다. 그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실존적 질문에서 연유한다.

과거의 삶의 세계와 현재의 삶의 세계의 만남이 바로 민속자원의 연구의 본질이며 중요성이다.

2. 근대 시대의 문화파괴와 복원의 필요성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화 과정과 기독교화 과정, 및 새마을 운동 등의 근대 이념화 과정이 진행되었고 이 이념화 과정은 삶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지역 공동체 문화의 파괴가 이뤄진다. 근대성에 내재된 기독교의 선교열망, 문명화, 세련화는 근대 문화적 삶에 나침반 구실을 하게 된다. 이러한 근대화와 서구화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한자 문화 자체를 단절하고 우리의 전통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작업이 생겨나게 되었고, 전통의 유토피아의 개념 역시 기독교적 천국으로 대체되고 만다.

일본의 식민지화과정은 동아시아 통합이라는 이념 아래 저질러진 일본의 군국주의의 이념에 의한 조선의 약탈이었다.

해방과 한국 전쟁 이후에도 우리는 결핍의 명찰을 달고, 경제적 근대성의 나침반을 쫓아가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의 근대화는 정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의 부조화의 특징을 보이는 시기로 규정된다.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 역시 경제 근대화라는 이념을 위해 지역의 문화유산이 파괴되는 과정이었다. 당시에 모든 문화적 가치들은 분서갱유하듯 파괴되었고 이러한 과정은 근대화라는 거대 프로젝트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 이렇듯 근대화 과정은 과거 전통문화의 훼손의 역사이다.

특히 과학이성의 발달로 인하 아우라의 제거작업들이 이뤄지면서 각종 근대 무속신앙의 환타지는 과학이성으로 대체되고 전통 문화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한 기준도 없이 많은 전통적 삶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조사되어진 민속자원에 대한 보존과 재발굴, 혹은 복원의 필요성은 필연적으로 등장하며, 해양민속자원의 복원 작업은 마을만들기 등 도시재생 사업보다 좀 더 근원적인 우리 존재에 대한 선험적인 이해와 해석의 작업들로 이해될 수 있다.

3. 어촌지역 민속자원의 중요성

어촌과 도서지역의 민속자원의 연구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역사의 방언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라는 문화의 원형성과 연관되어 있다. 해양과 도서는 각각이 지니고 있는 생태적 환경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다. 그래서 인간의 다양성에 관심을 갖는 전 세계의 인류학자나 민속학자들은 일찍부터 해양과 도서지역과 도서민들의 생활양식과 그 변화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다.

제주도의 방언이 가장 원형을 잘 가지고 있듯이 우리 문화의 원형은 도서지역에서 멀리 있을수록 잘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인류학자들이 언어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집중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고립된 지역으로서 섬사회란 원시문화의 기록을 위한 표본적인 공간으로 인류학적 이론과 연구방법의 발전을 위해서 고무적이고 풍부한 자료들을 제공해 왔다.

한국의 경우 삼면이 바다여서 많은 해양지역이 있고 한반도 인근해역에는 수많은 섬들이 산재해 있어서 한국문화의 원형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역시 어촌지역이야말로 자신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지식의 근원이 되고 있다.

또한 어촌 지역 문화는 한국문화의 하위문화의 하나이다. 거대 담론으로 이어지는 한국사의 하위문화로서 문화 확인의 가능성을 묻는 끝인 어촌과 도서문화의 민속자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폐쇄된 지역으로서 도서지역의 문화양식에 대한 복원은 우리 민족의 과거의 원형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음에도 많은 문화양태들이 소멸되고 있어 그 보존과 복원이 시급하다.

또한 도서지역의 문화는 우리 한국문화자원의 풍부성을 담보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보존과 연구가 필요하다. 도서지역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문화요소는 도서 환경내의 자원이용과 관련된 주민들의 적응전략의 소산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이한 도서 환경은 가용자원의 차이를 뜻하게 되며 자원 이용 과정에서 용이한 어떤 행위양식이 채택되어 세대를 거쳐 지속됨으로써 한 도서의 독특한 문화 요소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문화 요소는 도서내의 가용자원의 한계에 적응하는 주민들의 적응전략의 한 양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도서지역의 독특한 문화요소들은 한국문화의 다양성을 이루며 한국문화의 내용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이다.

II. 충남의 도서지역 자원

필자가 [충남도서종합개발계획] 중 도서문화 부분을 맡아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2013년에 직면한 현상은 많은 도서문화자원이 이미 사라진 뒤이거나 사라지고 있다는 부분이다. 또한 발굴된 문화자원을 문화컨텐츠화에 성공한 지역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도서문화자원이 그저 바다의 거품처럼 녹아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도서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한 다각도의 실효적 접근이 필요하고 요청된다.

1. 충남 역사문화자원 유형별 존재 양태와 분포 특성

1) 관청 및 군사시설

(1) 행정관청

- 일반 행정관청은 원산도(관사터, 국마장, 사창과 진말, 선정비), 대난지도 (관아터), 빙도(내수사 본궁) 등에 한정되게 존재했다.
- 원산도 관사터 등은 모두 조선시대의 것이며 대난지도의 관아터는 시대미상이며, 빙도의 내수사 본궁은 이성계의 왕실 재산관리용으로 역시 조선시대의 관청이다.

(2) 군사시설의 종류

- 봉수대는 (전라북도 옥구군 어청도)-외연도-녹도-원산도-(오천면 영보리 망해정 봉수대)로 있는 연결되어 설치되었었으며, 빙도의 쪽봉에도 설치되었다.
- 고대도의 조구녀가 있어 조선시대에는 수군들이 나와 목을 지키던 여라고 한다.
- 특히 원산도에는 이외에도 관의 무기창고를 의미하는 진말이 있었다는 것은 충청수영 원산진이 있었기 때문이며 진촌 마을은 충청수영의 우후(虞侯)가 근무 원산도 봉수대하던 원산진이 있던 곳으로 서쪽 언덕너머 오봉산 밑에 ‘관가’라고 불리는 옛 진영(鎭營)이 있던 곳이 있어 기와가 출토되었다.

2) 놀이자원

- 놀이는 주로 제례와 관련된 놀이로서 고대각시놀리기(고파도, 장고도, 호도, 원산도)가 있으며 등불싸기 놀이(장고도, 고대도, 효자도, 원산도), 등바루놀이(고대도, 장고도)가 있다.

3) 동물이름 지명 자원

- 동물 연관 도서명으로는 곰 모양의 웅도, 사슴 모양의 녹도 등이 있는데 녹도는 특히 돈여와 노루녀와 함께 섬 모양 관련 전설이 있다.
- 그 외 고대도의 뱀부녀는 마을 막아준다는 방부녀가 뱀 모양과 결합하여 형성된 이름이다.
- 말과 연관자원은 원산도의 국마장이 있음
- 그 외 물고기 관련 자원으로는 등불싸기놀이, 임경업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당제, 고기잡이 어로요 등이 있다.
- 그 외 뱀을 주제로한 자원으로는 장고도의 진대서낭제가 뱀 숭배신앙이며 민담으로는 우도의

쌀독에 들어간 뱀 이야기와 홍성 죽도에 사는 암컷을 찾아 바다를 건너오던 수컷 구렁이 대명이 이야기가 있다.

- 새와 관련된 지명 자원으로는 원산도의 지집은 글구라는 새의 전설이 있다.
- 용 명칭 지명 자원은 모두 전설을 가지고 있다.
- 대난지도의 응달내와 황룡과 청룡, 장고도의 용굴, 용난바위, 용굴과 속녀 등이 있다. 이것은 바다의 신인 용왕과 용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바다 회오리가 용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한 이유에서 용 설화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그 이외에 과거 쥐가 많아 상투가 짤릴정도라고 하는 우도, 지네가 많아 중들이 절을 포기했다는 응도의 이야기, 호랑이를 피했지만 놀라 백발이 돼 죽었다는 채장수이야기 등이 동물 연관 자원이다.

4) 마을제례 자원

- 대부분의 제례가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지는 상황에서 섬기는 신에 대한 차이가 난다. 특히 오연도의 전횡장군제는 이민족 신이라는 점에서 특질이 있으나 춘추전국 시대의 역사와 황우와 유방의 전쟁인 초한 전쟁과 연계될 수 있는 등 스토리텔링의 요소들이 잘 구성되었다. 특히 중국의 전횡도와 연계되는 점도 의미가 있다.
- 장고도의 진대서낭제 역시 뱀을 부락의 집단수호신으로 삼으며 뱀과 돼지가 상극이라고 하여 섬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기르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스토리텔링 요소가 잘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조기의 신인 임경업 장군을 섬기는 섬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고파도는 신할머니, 삽시도는 처녀신, 녹도는 천신, 가의도는 목판을 놓고 섬긴다. 장고도는 뱀, 외연도는 이민족신인 전횡장군을 섬긴다.
- 특히 놀이의 일종인 등불싸기 놀이는 조기잡이를 위한 놀이형 제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장고도, 고대도, 효자도, 원산도에서 행해지다 현재는 장고도와 고대도에서 최근까지 진행되었다.
- 해택의 분포지역은 전북의 어청도를 비롯하여 충남의 외연도, 녹도, 고대도, 원산도, 장고도, 안면도, 대난지도 등이 있다.

5) 민요자원

- 민요의 주제는 등불싸기 노래, 노동요, 어로요, 사랑노래, 제례요, 세월노래 등으로 나뉘어지며, 어로요가 섬 문화를 잘 드러내고 있다.

6) 설화자원

- 인물관련 설화를 주제로 분류해보면 장수설화가 주를 이루고 나머지 사랑과 유배 설화가 있는 정도이다. 일본관련 설화는 피해의식을 담고 있으며 나머지 중국 관련 설화와 장수 설화 등은 모두 비극 비극적 내용을 담고 있다.

7) 인물 주제

- 외연도의 전횡장군 설화와 가의도의 가의 설화, 삼시도의 홍수래 설화 등이 역사적 사실과 연관된 전설로서 스토리 가치가 있다.
- 자연관련 설화로는 숲, 동물설화, 바위, 새, 샘, 언덕 등의 설화가 있다. 이중 외연도의 천연기념물 제136호 상록수림이 전횡장군설화와 연결되며, 홍수래와 관련된 지명 전설이 삼시도의 중요한 설화자원이다. 홍수래 관련 지명전설은 지명편에 설명 예정이다. 색시골에서 죽은 동생이 새가 되어 '계집은 고을마다 있지만 동생은 하나인데'라고 '지집은글구'라고 운다는 '색시골 설화' 물망타의 물을 마시면 장수가 된다는 장수설화 등이 의미 있는 설화이다.

8) 초현실 설화

- 종교 등 초현실적인 주제를 다룬 설화로는 주로 귀신과 도깨비, 당제, 풍수 설화가 주를 이룬다. 우선 귀신과 도깨비 설화는 외연도의 충청도 아줌마를 부른다는 귀신, 가덕이와 을덕이란 도깨비를 이긴 장수 등 도깨비와 인간의 대립, 도깨비 불 목격담 등이 주를 이룬다. 다음으로는 일제가 선인의 묘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이야기와 절골의 금쟁이 샘이 명당이란 풍수설화 등이 있다.
- 그 외에 뱀(쌀독에 관한 설화)과 소(당제 일화) 관련 초현실적 이야기와 무연고 시체를 묻어주는 선행과 착한 뱀이 용이 된 명장섬 굴 설화 등이 교육적 이야기이다. 지역설화로는 난파한 기생배로 인해 장고소리가 난다는 바위 설화, 장군수를 마시면 장군이 태어난다는 장군수 설화 등이 있다.

9) 역사자원

- 고대도에 마한 때부터 사람이 정착했다고 함.
- 충남의 서해안 사이를 지나는 해로는 고대문화의 이동로였으며 이곳을 통해 동양 3국의 문화가 교류되고 있었다.
- 특히 백제시기 중국 남조나 당나라와의 문화 교류나 백제 멸망기 당의 수군이 침략, 통일신라시기 중국과의 열린 출구로서 이들 해로는 매우 중시됨.
- 통일신라 말 장보고 선단의 안내로 중국에 불법을 구하러 갔던 일본인 승려 圓仁의 여행기 「入唐求法禮行記」, 고려 초에 송나라의 사신 徐鏡의 「高麗圖經」을 통해 확인
- 통일신라 말이나 고려시대에 한반도와 중국의 강남문화와 연결되는 이들 고대해로는 마치 오늘날의 고속도로처럼 그 시대의 문화, 경제적인 보급의 인터체인지로서 역할을 함.
- 고려말 왜구의 출몰이 잦아 “空島政策”을 실시.
- 세종 20년 전후(15세기 초 중엽) 에 이르러서야 서남해 연안의 행정체제를 겨우 수립.
- 조선 후기에 이주집단이 현 주민의 직계 혈조인 ‘입도조’인 경우가 많다.
- 도피처로서도 입진왜란시 유부도 부자 도피처, 역사상 한번도 전쟁이 없었던 홍성 죽도의 ‘피난 꼬지’ 등이 있고, 이민족 피난처로는 가의라는 인물의 도피처인 가의도, 제나라 왕족인 전횡장군 등의 설화가 내려오고 있다.
- 그 외에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 선교역사의 장을 열었던 고대도 귀출라프 선교사의 방문 과 의

- 병 최후의 전투로서 기록되는 소난지도 의병전투 역시 중요한 역사적 사실임.
- 다양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0) 유적과 유물자원

- 유적과 유물로는 구석기유물, 도자기, 돌무덤, 조개더미, 질그릇, 토기 등이 발견되었다.

11) 지명설화 자원

- 지명유형으로는 섬지명, 골짜기, 관청, 동굴, 나무나 당제관련, 돌, 동물, 바위, 산, 샘, 섬 관련 지명이 특색이 있으며 이 중에서 홍수래 설화와 전횡장군 설화가 활용가능성이 있다.